

KKKKKKKK 양현종 선발 데뷔 “굿”

미네소타 상대 선발 데뷔전 3⅓이닝 1실점 8K 호투 김광현 뉴욕메츠전 4이닝 1실점... 2승은 다음 기회에

한국 프로야구를 이끌어온 동갑내기 좌완 김광현(33)과 양현종(33)이 나란히 메이저리그(MLB)에서 선발 투수로 동시 출격하는 꿈을 이뤘다.

김광현과 양현종은 6일(한국시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각각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텍사스 레인저스 유니폼을 입고 선발 등판했다.

김광현은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린 홈 경기에서 뉴욕 메츠를 상대했고, 양현종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타깃필드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 미네소타 트윈스를 만났다.

지난해 먼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김광현은 마무리 투수로 출발했지만, 끝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 선발투수로 자리를 잡았고, 2021년도 선발투수로 시작했다.

양현종은 많은 우여곡절을 극복하고 메이저리그 선발 등판의 꿈을 이뤘다. 마이네리에서부터 머물다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었지만 스프링

캠프와 텍시 스쿼드, 대체 훈련지에서 실력을 갈고 닦으며 기회를 엿봤다.

지난달 27일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전에 구원투수로 빅리그 데뷔 기회를 잡은 양현종은 4⅓이닝 2실점으로 역투했고, 31일 보스턴 레드삭스전에서도 구원 등판해 4⅓이닝 무실점 호투로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다.

텍사스의 선발투수 아리하라 고헤이가 부상으로 이탈하자 양현종이 6일 경기의 임시 선발투수로 낙점됐다.

김광현은 5일 등판 예정이었지만, 세인트루이스가 선발 로테이션을 조정하면서 6일로 일정이 미뤄져 양현종과 같은 날 선발 등판하게 됐다.

김광현은 4이닝 2피안타 3볼넷 2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하며 팀이 4-1로 이겼지만 승리 요건을 채우지 못해 시즌 2승 사냥에 실패했다.

양현종은 3⅓이닝 4피안타(1피홈런) 1볼넷 8탈삼진 1실점으로 강판됐다. 1회말 세 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처리하는 등 성공적인 선발 데뷔전을 치르는 듯했지만 2회말 미치 가버에게 솔로포를 맞아 실점했다.

3회말에는 무사 만루 위기에 놓였고, 호르헤 폴랑코를 삼진으로 잡았지만 텍사스 벤치는 교체를 지시했다.

김광현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게임을 이겨서 기분 나쁘지 않고 좋은 상태다”라고 강조했다.

양현종도 텍사스 구단 역대 두 번째로 3⅓이닝 이하 투구에서 삼진 8개를 잡아낸 투수로 이름을 남겼다. 빅리그 첫 3경기만 경험한 투수 중 한 경기 8탈삼진을 기록한 투수는 텍사스 역대 5번째다.



6일(한국시간) MLB 미네소타와의 경기에서 첫 선발로 등판한 양현종이 호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치르는 듯했지만 2회말 미치 가버에게 솔로포를 맞아 실점했다.

3회말에는 무사 만루 위기에 놓였고, 호르헤 폴랑코를 삼진으로 잡았지만 텍사스 벤치는 교체를 지시했다.

김광현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게임을 이겨서 기분 나쁘지 않고 좋은 상태다”라고 강조했다.

양현종도 텍사스 구단 역대 두 번째로 3⅓이닝 이하 투구에서 삼진 8개를 잡아낸 투수로 이름을 남겼다. 빅리그 첫 3경기만 경험한 투수 중 한 경기 8탈삼진을 기록한 투수는 텍사스 역대 5번째다.

양현종도 텍사스 구단 역대 두 번째로 3⅓이닝 이하 투구에서 삼진 8개를 잡아낸 투수로 이름을 남겼다. 빅리그 첫 3경기만 경험한 투수 중 한 경기 8탈삼진을 기록한 투수는 텍사스 역대 5번째다.

김광현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게임을 이겨서 기분 나쁘지 않고 좋은 상태다”라고 강조했다.

양현종도 텍사스 구단 역대 두 번째로 3⅓이닝 이하 투구에서 삼진 8개를 잡아낸 투수로 이름을 남겼다. 빅리그 첫 3경기만 경험한 투수 중 한 경기 8탈삼진을 기록한 투수는 텍사스 역대 5번째다.

김광현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게임을 이겨서 기분 나쁘지 않고 좋은 상태다”라고 강조했다.

벼랑 끝 KCC 기사회생?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현대 역전우승 재현 관심

프로농구 2020-2021시즌 정규리그 1위 전주 KCC가 챔피언결정전(7전 4승제)에서 벼랑 끝에 몰렸다.

KCC는 3일과 5일 전북 전주체육관에서 열린 챔피언결정전 1, 2차전에서 정규리그 3위 팀 안양 KGC인삼공사에 연달아 패했다.

2패를 당한 KCC는 7일 경기도 안양체육관에서 열리는 원정 3차전에서 반드시 이겨야 반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1997년 출범한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에서 한 팀이 1, 2차전을 모두 이긴 경우는 지금까지 11번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1, 2차전을 진 팀이 승부를 뒤집어 우승한 사례는 두 번이 있었다. 확률은 18.2%다.

1997-1998시즌 KCC의 전신 대전 현대가 부산 기아(현 울산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2패를 당한 뒤 결국 4승 3패로 우승했고, 이후 20년 만인 2017-2018시즌 서울 SK가 원주 DB에 2패 뒤 4연승으로 정상에 올랐다.

이 두 차례 역전 우승 가운데 올해 KCC처럼 홈에서 1, 2차전을 내주고 반격에 성공한 것은 1997-1998시즌 현대가 유일하다.

당시 현대는 대전에서 열린 1, 2차전에서 모두 졌지만 부산으로 옮겨 치른 3, 4차전에서 연승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후 잠실 중립 경기장에서 5차전을 기아가 이겼고, 6, 7차전은 현대가 연승하며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다.

이 시리즈는 당시 기아 소속이던 허재 전 국가대표 감독이 손등 부상에 경기 도중 오른쪽 눈 위가 찢어지는 등의 악재를 딛고도 맹활약, 지금까지 유일하게 준우승팀에서 플레이오프 최우수선수(MVP)가 배출된 사례로 남아 있다.

2017-2018시즌 SK는 원주에서 2패 후 안방으로 돌아와 반격에 성공한 경우다.

인삼공사가 올해 플레이오프 및 챔피언결정전에서 8연승을 내달리는 등 워낙 상승세가 가파르고, 특히 미국프로농구(NBA) 출신 제러드 설린저가 부진했던 5일 2차전에서도 인삼공사가 승리를 가져가는 등 KCC가 반격할 여지가 크지 않다는 평도 있다.

그러나 일단 7일 3차전을 따내 1승 2패를 만든다면 단기전이지만 ‘장기전’ 성격도 있는 7전 4승제에서 KCC가 시리즈 분위기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 1997-1998시즌 KCC의 전신 대전 현대가 부산 기아(현 울산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2패를 당한 뒤 결국 4승 3패로 우승했고, 이후 20년 만인 2017-2018시즌 서울 SK가 원주 DB에 2패 뒤 4연승으로 정상에 올랐다.

이 두 차례 역전 우승 가운데 올해 KCC처럼 홈에서 1, 2차전을 내주고 반격에 성공한 것은 1997-1998시즌 현대가 유일하다.

당시 현대는 대전에서 열린 1, 2차전에서 모두 졌지만 부산으로 옮겨 치른 3, 4차전에서 연승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후 잠실 중립 경기장에서 5차전을 기아가 이겼고, 6, 7차전은 현대가 연승하며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다.

일단 인삼공사가 1, 2차전 승리로 유리한 고지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3차전이시리즈 전체 흐름을 좌우할 커다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서귀포시체육회 법인 창립총회 개최

오는 6월 9일 출범 예정

서귀포시체육회는 지난 4일 사단법인 서귀포시체육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김태문 회장과 김영진 법인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 정관 제정, 임원 선임, 재산출연 사항 채택, 주 사무소 설치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시체육회는 법인설립 허가 후 오는 6월 9일 사단법인 서귀포시체육

회로 출범할 예정이다.

김태문 회장은 “체육회 법인화를 계기로 서귀포시 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 활성화에 위한 사업을 전개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체육회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체육회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에 지방체육회의 법적 법인화가 명시됨에 따라 지난 1월 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출범, 법인 설립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이선연 코치 소강체육대상 지도자상

최강 제주휠체어농구 지휘

제주특별자치도휠체어농구단 이선연 코치가 소강체육대상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이 코치는 지난 3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코리아나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제13회 소강체육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소강체육대상은 한국 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고(故) 소강 민관식 전 대한체육회장을 기리며 제정된 상이다.

이 코치는 “지난 4월 열린 휠체어 휠

체어농구대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휠체어농구팀이 우승했다. 5월을 시작하는 첫 월요일(3일)엔 지도자상을 받게 됐다. 올해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도쿄패럴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 또한 좋은 기운으로 선전하길 바라며, 고(故) 한사현 감독님께 영감을 돌리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선연 코치는 대구 출신으로 2018년 제주와 인연을 맺어 제주휠체어농구가 전국 최강팀으로 군림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오은지기자

제주Utd, 선두권 도약 ‘준비완료’

8일 홈에서 수원FC와 격돌 어버이날 맞이 이벤트 진행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8일 수원FC와의 홈 경기를 방문하는 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캡틴’ 이창민이 ‘K리그 정상을 향해 올라가자’라는 자신의 염원을 연고지 제주도와 구단 엠블럼 상징인 한라산 정상 높이 1950m에 담아 이날 경기장을 찾은 관중 1950명에게 생필품(각티슈 3개 1세트)을 쓴다. 후원사인 이마트는 5000원 이마트

할인권 3500매를 선착순 증정한다.

또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구단에 보내주면 경기 당일 5가구를 선정해 10만원 상당의 건강식품도 증정한다. 선정된 사원은 하프타임에 낭독하게 되며 해당 가족은 전광판 리얼 캡을 통해 경기장을 찾은 모두에게 소개된다. 사원은 ski_ip00604@partner.sk.com으로 보내면 된다.

한편 제주는 8일 오후 2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하나원큐 K리그 1 2021 14라운드 홈 경기 수원전을 치른다. 이날 관중들은 카네이션 스티커를 부착 후 입장하게 된다. 오은지기자

어머니 반찬 도시락

출장뷔페 - 결혼피로연, 돌잔치, 체육대회, 집들이, 아유회 각종행사
- 소규모행사 발차 운행

도시락 주문받습니다. 정식도시락A 6,000원 정식도시락B 7,000원 한정도시락 10,000원 일식도시락 10,000원 특정도시락 15,000원 (단체 도시락 (1인 5,000원 ~ 20,000원))

월 계약 반찬 납품
- 매일매일 만드는 건강하고 맛있는 반찬
A 타입 : 국, 메인반찬 2종, 밑반찬 5종 ① 5,000원 2인 이상 제주도 전역 납품가능
B 타입 : 국, 메인반찬 1종, 밑반찬 4종 ① 4,000원

제사, 명절음식
차례상, 고사상
저희 조상님 모시듯이 정성을 다하여 만들겠습니다.

반찬 종합 쇼핑물
집에서 클릭 한번으로 원하시는 반찬을 골라 주문하세요

어머니반찬도시락 http://www.foodmom.co.kr | 1566-9138 제주시 동한두길 42-1 (용담1동 386번지)

40년 전통 수제 신사복 전문 골덴라사

맞춤 양복은 명품(名品)입니다.
맞춤 양복은 오직 한사람만을 위한 예술품입니다.

준하복 신제품 대량입하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골덴라사 | 제주시 남성로 166(남문로터리 서쪽) T. 722-3679, H,P 010-7622-3679